



봉덕성당에서

2022년 10월 9일
+ 13일 토요일

3대리구 봉덕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8주일 2022. 10. 09. (다해) 제2343호

제1독서 2열왕 5,14-17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2티모 2,8-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7,11-19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상모성당 주임 | 조윤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서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카 17,13)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나병환자들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낫게 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낫게 해 달라.’고 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원의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받아들일겠다는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루카 17,14)

레위기 14장 3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제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들은 병이 낫기도 전에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치유도 되기 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이 나병환자들은 예수님께 ‘낫게 해 주시면 사제에게 가서 확인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다. 그냥 믿고 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루카 17,16)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루카 17,15-16)고 합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사제에게 갈 수도 있었고, 보고 싶었던 가족을 보러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내 몸이 나병환자보다 못해서 이런 믿음을 못 가지는 것인가?’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립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루카 17,17)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그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궤멸**

묵시록의 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하느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기 위해 나는 종종 묵시록의 여인을 떠올린다. 여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 열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있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떠올리기도 하고(창세 37,9 참조), 광야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여인이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도 해석한다(탈출 19,4; 신명 32,11 참조).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이런 해석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어머니요,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추앙하는 성모님을 묵시록의 여인에 빗대어 이해하곤 했다. 산고 속에서도 사내아이를 낳고야 마는 묵시록의 여인과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겹쳐져 인식되었기 때문이리라. 묵시록의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는 유다 사회가 기다려온 메시아의 상징으로 이해되었고(이사 7,14; 시편 2,9 참조)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아는 예수였기에 묵시록의 여인과 성모 마리아는 다른 여인이되 하나의 운명을 살아낸 여인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했다.

여인은 용과 대립 구도로 서술된다. 용은 ‘옛날의 뱀’이라 했다(묵시 12,9). 하와를 속이고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뱀. 뱀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버젓이 꿈틀거리고 여전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묵시록이 여인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갈망에 제 삶의 뿌리를 내린 모든 신앙인의 표상이다. 태어날 사내아이를 삼키려 기다리는 용의 위협 속에서도 여인은 끝끝내 사내아이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야 마는 대목이 그렇고(묵시 12,4), 아이를 낳은 후 용을 피해 광야로 떠나간 여인의 행보가 더더욱 그렇다(묵시 12,6). 거친 광야에서 여인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천이백육십 일’은 유대인들에겐 치욕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 제국의 임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유린되고 더럽혀진 시간이었고(묵시 11,2 참조), 그 시

간에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다. 박해를 딛고, 치욕을 감내한 유다 사회는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 얼마간의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다. 그 후, ‘천이백육십 일’은 하느님 백성이 겪는 박해의 시간을 상징하는 시간 개념이 되었다. 묵시록의 여인이 겪은 ‘천이백육십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시간 안에 여전히 녹아있다. 살고 싶어 울부짖을 때, 우리는 죽음의 위협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몸서리치면서 이 삶을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갈망의 제물로 봉헌하며 어떻게든 버틴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알고 간절함에 울부짖는 이들 안에 묵시록의 여인은 육화하며 함께 버텨낸다. 메시아 시대는 고통의 시대를 전제하니까(이사 21,3;26,17-18;37,3 예레 4,31;6,24; 미카 4,9-10).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 삶의 희로애락은 중첩되어 커켜이 쌓여간다. 기쁨과 행복과 성공 만이 전부인 삶이 없을진대, 매일 같이 행복과 불행의 불균형을 원망하며 살아간다. 바라는 것이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한다. 삶의 무게에 신음하며 정체된 상태로 머물다 어느 순간 감정이 이완되어 터져 나오는 거친 언행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한다. 그때 묵시록의 여인을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신앙은 고통 너머의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에 맞닥뜨린 지금의 시간이 신앙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메시아는 태어나고 메시아는 살아가고 메시아는 기다려진다는 것을. 묵시록의 여인이 살아낸 힘겨운 시간 안에 하느님께서 계셨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또한 이 삶을 버텨낼 것이다. 하느님, 당신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삶은 파편화된 기쁨이나 행복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리하여 함부로 해석될 수 없는 신비로 애뜻할 뿐이다. 우린 그 애뜻함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어 갈 묵시록의 여인이다. **궤**

교황, “우리는 세계대전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십시오!”

2022년 9월 7일 바티칸 뉴스 | 번역 박수현

우크라이나 전쟁 196일째인 9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요일 일반알현 말미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기억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스비아토슬라프 셰브추크(Sviatoslav Shevchuk) 상급대주교는 가장 최근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한스크에서 계속되는 전투 상황을 전하며, “오늘도 이 땅은 폭격으로 요동치고 국민들은 울부짖는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알현에 참석한 많은 군중 사이로 보이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우크라이나 국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떠올렸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보이네요.”

교황의 호소이자 외침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이는 교황이 지난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대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전쟁 상황을 마주하며 모든 이가 평화를 건설하고, 화합과 화해의 프로젝트들이 세계 전역에 퍼지게끔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대전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전쟁을 멈추십시오!”

교황은 지난 3월 25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했고, 목주기도를 바쳤다. 또한 성모님께서 늘 이들을 중재하시길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이날 교황은 다시 한번 성모님께 이 순간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탁하며 이들의 보호를 청했다.

“성모 마리아님, 도처에서 벌어지는 온갖 전쟁의 희생자들, 특히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어머니께 맡깁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여학교와 수녀원을 강복하다

9월 23일 월요일

줄리앙 신부가 도착했다. 나는 대구교구 내에서 성영회 사업의 활동을 규정하는 제10호 회람을 보냈다.

9월 24일 화요일

르 각(Le Gac, 郭元良) 신부가 여기서 며칠을 지내기 위해 왔다.

9월 27일 금요일

르 각 신부가 되돌아갔다.

10월 4일 금요일

여학교와 수녀원 건물이 완성되었다.

10월 10일 목요일

서울발 급행열차 편으로, 서울 분도 수도원의 보니파시오 원장신부가 대구에서 며칠간 지내려고 왔다. 스테 파니와 데클라 두 한국인 수녀가 학교를 맡게 되었다. 이 수녀들은 대구에 관한 평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 열성이 없다.

10월 13일 일요일

성체강복 후에 나는 보니파시오, 소세 신부 등이 보석한 가운데 여학교와 수녀원의 강복을 했다. 의식 후에 행한 연설에서 나는 수녀들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기대해서 안 되는 것에 관해 설명했다. 기대해서 안 되는 것은 수녀들이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14일 월요일

보니파시오 신부가 돌아갔다. 우리는 그의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번 겨울에 그는 수도회의 총 참사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서 함께 모금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 일은 내게 아직 시기상조이다.

10월 15일 화요일

투르뇌 신부가 우중에 도착했다.

10월 16일 수요일

새로운 선교사인 르네 팡트렐(René Pentrel, 어쨌든 우리 모두는 악필(惡筆)인 그의 서명을 그렇게 읽었다) 신부의 부임이 알려졌다. 그는 12월에 시베리아 횡단열차 편으로 올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 : 2022. 10. 31(월) ~ 11.11(금)

인터넷 접수 : <http://cu.ac.kr>

문의 : 053)660-5111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유스티노자유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 인문학 석사 학위 과정

모집 : 2022. 10. 31(월) ~ 11.11(금)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강의 : (월) 야간강의, (목) 특강 6회 (남산동)

혜택 : 전원 50%(성직자·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 053)660-5252~4 / 010-6563-0409

<http://dept.cu.ac.kr/user/jsfree/>

에밀타케 신부 탄생 150주년 기념 대한제국 식물표본전

2022. 10. 14(금)~23(일)
KBS대구방송총국전시실

주제 | <한티가는길>의 풍경 및 인물 사진

기간 | 10.4(화)~14(금) 15:00까지

시상 | 대상(100만원) 1명, 금상(70만원) 1명, 은상(50만원) 1명,
동상(30만원) 1명, 장려(10만원) 10명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먼 거리 공공교통 이용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0일(월) 10: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1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2일(수) 10:00 평화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5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0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0.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수시 문의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10.18(화)~19(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엄마와 딸 피정

일시: 10.15(토) 14:00~16(일) 15:00
장소: 여주 사도의모후집
참가비: 1팀 8만원
문의: 성바로로팔수도회, (010)2507-161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모임

일시: 10.10(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10분)
주제: 위령기도와 가톨릭제사(교재있음)

토요성령기도회 특강

일시: 10.15(토) 14:00~17:30
특강: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현대백화점 앞/ 설화명곡역 출발
문의: (054)954-3091

신앙 안에서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일시: 10.20부터~ 매주 목, 금요일(선택)
10:00~12:00 (10명) / 10주간
교육비: 20만원

장소: 샬트르성바로로수녀원 내 CPE센터
문의: (010)4996-5508

암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회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1:00
내용: 미사, 점심, 기도
문의: 성모솔솔마을, (010)3209-3955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4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교구 외 | 기타 알림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39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류정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이랑로 46 [신남동 214-4] 2층 Tel 053-954-7582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막병원 3층
청라안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현 대보라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찬현(야고보) 신부
2019년 10월 1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10월 예비신학교 모임 안내

일시: 10.16(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중1~고3, 대학일반)
포항 죽도성당(4대리구 중등부)
구미 신평 5대리구청(5대리구 중등부)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217차 탈출기

일자: 10.22~23 / 10.26 / 10.29~30
장소: 푸르실료 교육관 / 신청비: 15만원
대상: 탈출기 팀공부를 완료한 청년
신청: www.jesusclub.or.kr 청년사목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일자: 11.9(수)~11.10(목)
장소: 한티피정의집(교구청 차량 이용가능)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10.27(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동춘(요셉)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청 관리과 시설관리 직원 채용

자격: 55세~60세, 시설관리 업무 경험자
서류: 교구 홈페이지 알림란 확인
마감: 10.21(금) 15:00
제출 및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1

다사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가능자, 가톨릭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기한: 10.16(일)까지 / 문의: 587-7300

성안드레아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가능자, 45세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742-028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신앙여정, 난타, 장구, 사군자문인화,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포슬린 아트,
이론화, 사범꽃꽂이, 프랑스자수,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학교법인선목학원 중등 교원채용
(1차시험 교육청위탁)

원서접수: 10.17(월)~21(금)
홈페이지 참조: www.dgsunmok.or.kr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 신입생 모집

한국어교원2급, 석사학위(2년)/ 남산동캠

퍼스 주회 출석(2과목 온라인)/ 학사학
위(전공무관) 지원, 신입생 장학금 25%
모집: 10.31~11.11 / 문의: (010)4520-6253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유치원
2023학년도 입학설명회

문의: 입학담당처, 962-6161

효성초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시: 10.31(월)~11.4(금) 9:00~17:00
대상: 16.1.1.~16.12.31. 출생 아동,
조기 입학자 및 2022 취학의무유예자
설명회: 10.28(금) 10시/문의: 234-9500

39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설명회: 10.15(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대학생 및 성인, 조기유학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마리아사제운동 10월 미사 안내

일시: 10.15(토) 10:00 삼덕성당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문의: 평신도대표, (010)9366-9170
이 운동은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운
동이며, 기도모임을 체나콜로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2차 ME주말: 10.28(금)~30(일)
394차 ME주말: 11.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태윤(미카엘)
김진혜(보나) · 이정호
김진선 · 정현욱 · 김무현
효성병원 맞은편 잘보는안과
☎ 053 766 4455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59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습진 / 무좀 / 아토피 / 건선 / 탈모 / 레이저 시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 053) 320-200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역두(미오스탕),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 053-255-22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호(요한)
T. 630-8000 순천역 2번 출구

가면
22년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